

‘일본군’위안부: 법과 역사’ 학술심포지엄 열려

28일 일본군'위안부' 문제 학술심포지엄 개최



일 시 : 2018년 4월 28일 (토) 13:30~18:00

장 소 :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소강당 (최종길 기념홀)

주 최 : 여성가족부,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,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

주 관 : 일본군'위안부'연구회, 젠더&섹슈얼리티연구소 '숨'

제 1 부

사 회 : 양현아(서울대)

『제국의 위안부』 소송 --- 박래형(법무법인 [유] 로고스)

한국에서의 일본군'위안부' 소송 --- 이상희(법무법인 지향)

일본에서의 일본군'위안부' 소송 --- 김창록(경북대)

토론 : 조시현(민족문제연구소), 박배근(부산대)

제 2 부

사 회 : 이나영(중앙대)

탈냉전기의 일본 진보세력과 '리버럴'담론의 형성 --- 정영한(메이저가쿠인대)

진중일지를 통해서 본 일본군 위안소 --- 하중문(한신대)

토 론 : 남기정(서울대), 김상규(고려대)

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'일본군'위안부: 법과 역사'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.

이번 행사는 여성가족부,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, 경북대 법학연구원이 주최하고, 일본군'위안부'연구회, 젠더&섹슈얼리티연구소 '숨'이 주관했다.

1부 사회는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. 발제에는 박래형 법무법인(유)로고스 변호사,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,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. 각각 △『제국의 위안

부』 소송 △한국에서의 일본군'위안부' 소송 △일본에서의 일본군'위안부' 소송에 대해 얘기했다. 이어
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, 박배근 부산대 법학연구소 소장이 토론을 진행했다.

2부에서는 정영환 메이지가쿠인대 교수가 '탈냉전기의 일본 진보세력과 '리버럴' 담론의 형성'을, 하종
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가 '진중일지를 통해 본 일본군 위안소'를 주제로 발표했다. 사회는 이나영 중
앙대 교수가 맡았다. 이어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등이 토론에 나섰다.

1488호 [사회] (2018-04-27)

강푸름 여성신문 기자 (purm@womennews.co.kr)

Copyright © 1988-2018 여성신문
<http://www.womennews.co.kr/news/141571>